

KG케미칼, 회사 정리절차 종결

회사경영 정상화 판단 ... 친환경 정밀화학 사업에 집중 계획

KG케미칼(옛 경기화학)은 10월30일 인천지방법원이 회사정리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파산부는 KG케미칼이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 등을 인수 대금으로 일시 변제했고 자금력 있는 제3자에 인수돼 회사경영이 정상화됐으며, 앞으로 정리계획의 수행에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회사정리절차 종결을 선언했다.

KG케미칼은 법정관리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보우 부동산 매각 등 다각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수익성이 높은 친환경 정밀화학의 사업비중을 조만간 5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는 등 사업 분야의 집중화를 꾀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10/31>